

교육부 사범대 강화 기조에 사범대 없는 우리학교는?

고도희 기자 kdhstory@khu.ac.kr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2024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중등교원 규모 축소 기조가 우리학교 교원양성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기준, 우리학교 2024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64명이다. 교육대학원생 41명, 학부 교직과정 이수자 22명, 1명의 일반대 학원생이다.

우리학교 교원양성과정은 학부 교직과정 이수와 교육대학원에서 이뤄진다. 학부 교직팀과 교육대학원 측은 학령 인구 감소로 임용 선발 인원이 대폭 줄고 있는 현 상황

과 사범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실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해 임용시험 합격자 수 71명에 비하면 감소했다. 또한 사범대를 중심으로 교사를 양성하려는 현 교육부 기조에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 과목 등은 사범대와 사범대 연계 학과를 통해 안정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중등교원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교사 채용 축소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받는 평

가 등급이 중요하다. A등급은 부총리 표창 수여, B등급은 현행 유지다. C등급부터는 조치가 취해진다. C등급은 30%, D등급은 50%의 교원 양성 정원이 축소되며 E등급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된다.

우리학교는 지난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2015~2017)’에서 학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 캠퍼스 교직 이수자 선발 정원이 190여 명에서 129명으로 감소해 2020년부터는 127명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부터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캠 교직팀은 “앞으로 교직과가 더 축소돼 경희대 출신 교사가 학교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행 유지를

위해 B등급 이상 받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교직팀과 교육대학원은 역량진단 요소 충족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탐방, 학생주도 동아리, Mock Class(모의수업), 임용시험 준비 지원사업, 후마니타스 우수 예비교사 인증제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캠 교직팀은 교직 이수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직 프로그램 홍보, 교직 이수생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간담회 참가 학생은 교직팀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행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여러 전공의 교직 이수생과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낮은 참여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재연(물리학 2020) 씨 역시 “해외 탐방과 같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됐고 현재 교직팀의 고충을 들으며 같이 고민해볼 수 있게 된 점이 좋았다”면서도 “교직 이수생의 저조한 참여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양 캠퍼스에 위치한 교직팀 간의 연계성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직 복수전공으로 역사과 임용을 준비 중인 안유진(일본어학 2019) 씨는 “캠퍼스 간 교직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던 교직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되거나 처리 방식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다”는 관련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대학원 동기가 된 모녀 “교육자 위한 교육자 되고파”

배연우 기자 yeonwoo.bae22@khu.ac.kr

모녀가 같은 학번을 갖게 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에 동시 합격한 어머니 정씨는 씨(56)와 딸 서연우 씨(32)의 이야기다. 대학원에 들어온 이유는 다르다. 어머니 정 씨는 교원 자격 양성과정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이다. 서 씨는 재교육 과정으로 전공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코로나 시기를 도전의 기회로 두 모녀의 새로운 시작

정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서 씨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 중이다. 이들이 돌연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유아교육’이라는 학문의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 그리고 서로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코로나 시기에 대학원 입학할 더욱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에 휴식이 생기며 안정감이 생겼고 어린이집 운영도 더 잘됐지만 안정감이 드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의 발전 없이 그냥 편안해 멈춰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 씨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선생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비교적 늦은 나이였기에 대



왼쪽부터 차례로 자녀 서연우 씨와 어머니 정씨는 씨의 모습이다.

(사진=배연우 기자)

학원 진학 도전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 씨는 딸에게만 대학원 진학을 권유했다. 서 씨는 “전 아직 어리니까 많이 배워서 더 좋은 교사가 되라고 말해 주셨는데,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딸 역시 혼자 대학원에 다니려니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참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문득 이번 시기를 넘기면 영원히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

서 씨는 어머니와 함께 교육대학원에 다니는 의미에 “어머니와 같이 다니는 모든 순간”이라고 했다. 정 씨도 마찬가지였다. 정 씨는 오

래전에 했던 다리 수술로 여전히 걷는 게 편치 않다. 그래서 딸과 함께 하는 대학원 생활이 더욱 귀중하다.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딸이랑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뭐든 미루지 않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열심히 살다 보면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모녀는 교육대학원 과정을 통해 교육자를 위한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비 교사를 교육하는 것이다. 서 씨는 “목표를 두고 대학원을 오진 않았지만, 대학원에 온 후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 선생님과 함께 알고 싶은 지식을 공유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 씨의 바람은 어린이집을 더 체

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딸의 바람과 비슷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부모 교육 전문 강사가 되거나, 교사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는 교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람’은 가장 큰 원동력

유아교육이라는 공통점으로 대학원까지 오게 된 모녀는 그 이유를 ‘보람’이라 설명했다.

다섯 살이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서 씨를 찾아줄 때 보람을 느낀다. 아이들이 문자로 안부 인사를 묻기도 하고 주말에는 무얼 하는지 묻기도 한다. 문자로만 연락

하던 저학년 아이들이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모습에는 웃음이 절로 지어진다. 서 씨는 “연락이 오다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과거도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래요. 힘들었던 것도 정말 많지만요. 누가 보면 그게 그렇게 뿌듯한 게 싶기도 한데 전 그런 걸로 힘들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정 씨가 가르쳤던 아이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뒤 찾아왔다. 정 씨의 어린이집에서 교사 실습을 하고 현재 함께 근무하고 있다. 정 씨는 대학원 강의 중 “교사는 진솔해야 하고 보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아이와 부모님이 소통하며 크는 걸 보면 보람차요. 유아교육은 매력 있는 분야예요.”

정 씨의 주변에는 부쩍 은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은퇴’라는 단어에서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씨는 은퇴가 아닌 인생 제2막을 택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딸과 같이 한 길을 걸어가며 고민도 해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큰 복”이라고 말했다. “저는 유인물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은 전자기기를 쓰고 수업 방식도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딸의 도움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제는 따로 하지만 딸이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